

KTTU와 함께하는
나의 일과 내일

내일

2025 vol-7





우리가 흘린 여름의 땀방울, 마침내 얻게 된 가을의 결실

더위와 폭우로
다사다난했던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피부를 스치며 인사합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KT 노동조합은 지난여름,
수해 피해 지역을 방문해
도움의 손길을 드리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약속했습니다.
또, 우리는 조합원들과의 가장 큰 약속인
2025년도 단체교섭이 긴 시간 끝에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타당한 논리와 명백한 근거를
바탕으로 얻어낸 결과이지만
항상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열심히 전진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 때 일수록
하나가 되어 연대해 왔습니다.
노동의 가치와 땀방울의 무게를 잘 알고 있기에
합당한 공정보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조합원들을 위한다는 일념 하나로
발 벗고 뛰겠습니다.

KT 노동조합 제15대 위원장

7/2023

04	인생 '힘' 충전 시리즈 <관심>	통양상관 (痛癢相關)
06	테마 에세이	새 역사를 쓴 독립 영웅 홍범도 장군 이야기
08	거침없는 실천	2025년 단체교섭, 두 달여의 줄다리기 끝에 성공적 합의 도출!
14	노동법 안내	폭염 속 안전하게 일할 권리
16	함께 만드는 변화	하반기 신입 조합원 입문교육 실시
18	나눔플러스	수해재난지역에 뿌리내린 희망의 손길 KT 노동조합 재난 극복 지원활동
22	AI 시대의 새로운 노동	AI 시대의 노동 규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24	이슈리포트	'이재명 정부 출범' 노동환경 대변화 예고
26	내, 일 동행	오늘날의 우리에게 전하는 작은 위로
28	KTTU NEWS	
30	현장의 목소리	

발행일 2025년 9월 22일 | 발행인 KT 노동조합 위원장 김인관 | 편집인 KT 노동조합 정책실장 유희수 | 발행처 KT 노동조합
(1360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정자동 206) T 031-727-2840 F 031-727-2815 | 기획·제작 (주)워크디자인 T 02-332-7961~2

통양상관

(痛아플 통 癢가려울 양 相서로 상 關관계할 관)

아픔도, 가려움도 함께 느끼는
아주 가까운 사이

우리는 하루의 절반 가까운 시간을
직장에서 보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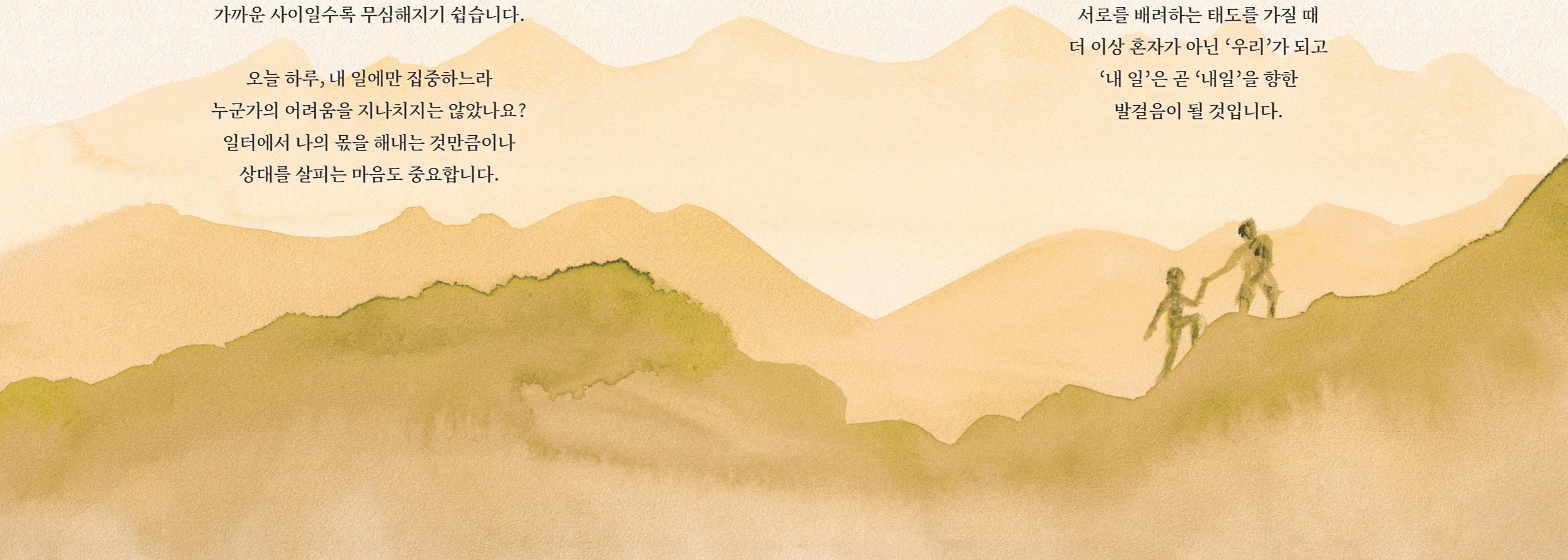
그만큼 동료와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만,
가까운 사이일수록 무심해지기 쉽습니다.

오늘 하루, 내 일에만 집중하느라
누군가의 어려움을 지나치지는 않았나요?
일터에서 나의 뜻을 해내는 것만큼이나
상대를 살피는 마음도 중요합니다.

기쁨은 함께 나눌수록 커지고
슬픔은 나눌수록 작아지는 법.
지친 하루엔 따듯한 말 한마디가,
막막한 순간에는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동료의 감정을 헤아리고
어려움에 먼저 손 내미는
'통양상관(痛癢相關)' 같은
끈끈한 관계가 필요한 것이죠.

서로를 배려하는 태도를 가질 때
더 이상 혼자가 아닌 '우리'가 되고
'내 일'은 곧 '내일'을 향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새 역사를 쓴 독립 영웅 홍범도 장군 이야기

1920년 6월 7일, 홍범도 장군이 속한 대한독립군은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을 무찌르고 대승을 거뒀다. 이후 홍범도 장군은 ‘날으는 호랑이’라고 불리며 이름을 알렸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머슴살이를 하던 홍범도는 천대받는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군에 입대했다. 이후 명포 수로 활약하던 그는 하루라도 빨리 나라를 되찾겠다는 일념으로 국내 진입작전을 준비했다.

봉오동 전투 당일, 홍범도 장군의 선두 저격을 시작으로 총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일본군이 이미 매복 작전에 걸린 사실을 깨달았을 땐 늦었다. 이후 세 시간가량의 총격전이 이어졌지만, 일본군은 157명의 사상자를 안고 후퇴했다. 이어진 청산리 대첩에서도 홍 장군은 연합부대를 이끌고 전세를 뒤집으며 승리를 거두었다. 이 두 전투는 조선 독립군의 강한 전투력을 세상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승리 뒤에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간도 지역에서 일본군의 대대적인 조선인 학살, 자유시 참변 등 수많은 위기를 겪으며 독립군의 기반은 무너졌다. 1937년, 홍 장군은 소련 스탈린 정권에 의해 연해주에서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로 강제 이주 당해 살아가야 했다. 말년에는 조선극장에서 경비를 서며 생계를 겨우 이어갔다. 극장 총연출가의 부탁으로 자신의 삶을 기록한 『홍범도 일지』를 써냈고, 그의 이야기는 한 편의 연극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조선극장 이전 후 홍 장군의 병세는 깊어졌고, 그가 그토록 염원하던 해방을 생전에 보지 못한 채, 1943년 쓸쓸히 생을 마감했다.

홍범도

출생/사망	1868. 08. 27 ~ 1943. 10. 25 (75세)
별명	날으는 호랑이
중요 사건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둔 주역
영향	독립군의 전투력 과시, 항일 무장투쟁의 상징적 인물
성과	봉오동·청산리 전투 승리, 독립군 연합부대 지휘
의미	불의에 맞선 용기와 희생, 독립에 대한 의지를 끝까지 지킨 투사



홍 장군의 삶은 외롭고 고된 싸움의 연속이었다. 부인은 일본군의 고문으로 숨지고, 장남과 차남도 잃었다. 그는 가족과 자신의 안위보다 자나 깨나 조국의 독립을 위해 전투 때마다 동료들을 앞장서 이끌며 신뢰를 얻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었다. 비록 그는 고향을 떠나 살아가야 했지만, 끝까지 젊은이들에게 ‘조국을 위한 마음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시간이 흐르며 홍범도 장군의 업적은 한동안 잊힌 듯했지만, 2021년 그는 마침내 조국의 품으로 돌아왔다. 이국땅에서 눈을 감은 지 78년 만의 일이었다.

자신의 삶이 아무리 고단해도 독립에 대한 의지를 끝까지 굽히지 않았던 홍 장군의 모습은 조국의 해방을 염원하던 수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의 굳건한 정신을 기리는 의미에서, 일본군을 통쾌하게 무찌른 봉오동·청산리 전투의 아픈 역사까지 우리는 함께 기억해야 한다. 비록 그는 비록 해방된 조국의 땅을 밟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지만, 그의 삶은 지금도 독립의 참된 의미를 일깨워준다. 그가 간절히 바라던 자유의 시대에 살아가는 오늘, 홍 장군이 몸소 실천한 용기와 신념은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소중한 가치다.

**2025년 단체교섭,
두 달여의 줄다리기 끝에 성공적 합의 도출!
“합당한 보상과
개선된 근무 환경 위해
최선 다할 것.”**

지난 8월 21일(목), 2025년도 단체교섭 가합의(안)이 90.8% 찬성으로 최종 가결되었다.
 두 달여 간의 짧지 않은 여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이다.
 이에 따라 8월 25일(월) 17시, 노사는 2025년도 단체교섭 협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했다.
 이번 단체교섭은 새로 출범한 정부의 엄격한 기업 규제에 진통과 난항을 겪었지만,
 KT노동조합의 노력으로 원만한 타결에 이를 수 있었다.

갈등 아닌 원원을 궁극적 목표로 한 단체교섭



KT노동조합은 지난 6월 19일(목),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8월 18일(월)까지, 약 두 달여 간 조합원의 합당한 임금과 공정보상 등을 위해 힘써왔다. KT노동조합은 임금 분야 외에도 인사·복지분야, 고용안정분야에 있어 근로자의 권리 향상을 위한 목소리를 냈다.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폐지로 인한 고용안정이 한국 노동계 핵심쟁점인 만큼 사측은 사회 전반의 흐름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이번 교섭이 KT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전한 것이다.

그 결과, KT노동조합과 회사는 8월 18일(월) 오전 9시, 2025년도 단체교섭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가합의(안)을 체결했다. 두 달여간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노사는 임금분야 요구 등 한 때 이견을 보였으나 지속적인 대화와 양측 대표의 최종 조율에 따라 이날 극적인 합의를 이뤄냈다.

가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임금 기본급 정률 3% 인상 ▲일시금 300만 원 지급 ▲명절상여금 4분기 노사협의 안건 상정 ▲현장 직책승진 요건 폐지 ▲동일직급 장기체류자 특별승진 시행 ▲휴대폰 지원제도 월 16만 원 범위내 지원 ▲자기계발출장 근속연수별 지원금 상향 ▲정년퇴직자 특별휴가 제도 변경 등이다. 이번 단체교섭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핵심 안건인 임금 인상이 정률 3%에 합의된 것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통상 임금의 범위가 확대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은 임금의 고정성 여부를 폐기하고 재직여부, 소정 근로일수 근무일 총족을 기준으로 하게휴가비 등 지급된 금액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같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한 실질적 임금 인상효과가 별도로 2.7%에 이르게 되는 셈이다. 산정되는 퇴직금이 많아져 총 인건비 한도가 높아지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1차, 2차 실무소위원회 회의 개최 | 정률 6.3% 임금인상 요구



6월 25일(수) 14시, 분당사옥 회의실에서 2025년도 단체교섭 제1차 실무소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KT노동조합은 임금인상안에 있어 2025 경제성장률과 소비자 물가지수를 감안하고 지난 3년간의 차율에 대한 평균을 합해 6.3%를 요구했다. 이어 7월 1일(화) 14시, 분당사옥 회의실에서 2025년도 단체교섭 제2차 실무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임금 분야에 관한 협상을 재개했다. 노측은 공정하지 못한 일부 임금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은 조합이 요구한 정률 6.3% 임금인상 뿐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3차, 4차 실무소위원회 회의 개최 | 임금인상 재차 요구



KT노동조합과 회사는 7월 3일(목) 오전 9시, 2025년도 단체교섭 제3차 실무소위원회를 열고 논의를 이어갔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사측은 현재 AI투자 및 비용 지출 등으로 조합에서 요구하는 임금인상 정률 6.3%는 즉각 수용이 어려움을 밝혔다. KT노동조합은 “2024년 MIT분야 성과와 2025년 상반기 성과는 조합원의 노력으로 이루어 낸 것이므로, 임금인상을 통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2025년 서비스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조합에서 요구하는 임금인상 6.3%를 수용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5차, 6차 실무소위원회 회의 개최 |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폐지 요구



7월 10일(목) 오전 9시, 2025년도 단체교섭 제5차 실무소위원회를 열고 고용안정분야에 관한 교섭을 진행했다. KT노동조합은 고용안정분야에서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하며, 정년으로 인해 숙련된 기량자들이 빠져나가면 업무 진행에도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금피크제 폐지 역시, 조합에서는 “현장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 명 한 명의 조합원 모두가 핵심 운영 인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7월 15일(화) 오후 2시에는 2025년도 단체교섭 제6차 실무소위원회가 열렸다.

7차, 8차 실무소위원회 회의 개최 | 인사·복지분야 개선 요구



7월 17일(목) 오후 3시, 2025년도 단체교섭 제7차 실무소위원회가 열렸다. 조합은 휴대폰 지원 제도 개선, 자기개발 출장비 인상 및 5년 단위 시행, 통근보조비 현실화, 정년퇴직자 지원 제도 중 퇴직 시 지원금 인상 등에 대해 빠른 시간 내에 사측에서 해결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7월 22일(화) 오후 3시에는 2025년도 단체교섭 제8차 실무소위원회를 열고 논의를 이어갔다. KT노동조합은 이번 교섭이 KT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9차, 10차 실무소위원회 회의 개최 | 노사 간 대치 계속



7월 24일(목) 오전 9시, KT 노동조합과 회사는 2025년도 단체교섭 제9차 실무소위원회를 열고 논의를 이어갔다. 계속되는 대치에 이어 7월 29일(화), 2025년도 단체교섭 제10차 실무소위원회를 열었으나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사 양측의 평행선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KT노동조합은 향후 회사의 계속되는 미온적 태도, 교섭을 해태하는 행위에 따라 강력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을 밝혔다.

2차 본회의 개최 | 기본급 정률 3% 인상, 일시금 3백만원 등 타결



KT노동조합과 회사는 8월 18일(월) 오전 9시, 2025년도 단체교섭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가합의(안)을 체결했다. 지속적인 대화와 양측 대표의 최종 조율에 따라 노사는 이날 극적인 합의를 이뤄냈다.

가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임금 기본급 정률 3% 인상 ▲일시금 3백만원 지급 ▲명절상여금 4분기 노사협의 안건 상정 ▲현장 직책승진 요건 폐지 ▲동일직급 장기체류자 특별승진 시행 ▲휴대폰 지원제도 월 16만원 범위내 지원 ▲자기계발출장 근속연수별 지원금 상향 ▲정년퇴직자 특별 휴가 제도 변경 등이다.



단체교섭 가합의(안) 90.8% 찬성



2025년도 단체교섭 가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총회를 실시한 결과, KT 노동조합 조합원 및 새노조를 포함해 총 11,090명 중 9,294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찬성 8,442표(90.8%)로 최종 가결됐다.

김인관 위원장은 “길고 길었던 두 달이라는 단체교섭 여정 동안 지지해 주시고 함께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설명한 뒤, “교섭에 임할 때 책임감으로 늘 어깨가 무거웠지만 조합원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아쉬움이 남는 분들의 의견 역시 깊이 새겨들어 내년 단체교섭 또한,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합당한 보상과 개선된 근무환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단체교섭 최종협의안



임금 정률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 정률 3% 인상 및 일시금 300만 원 지급
명절 상여금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재논의 (10만 원~20만 원 수준 예상)
G5 승진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직책 수행 요건 폐지 • 동일 직급 장기 체류자 특별 승진 시행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16만 원 범위에서 단말기 할부금, 요금제 등 휴대폰 지원을 제공 • 자기계발출장 지원 개선 (근속년수별 지원금 상향 및 15년, 25년 지원금 신설)
정년퇴직자 지원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휴가 부여 (퇴직 2년 전부터 1년 전 사이 최대 20일, 퇴직 1년 전부터 퇴직일 사이 최대 60일 부여) • 시니어컨설턴트 처우 개선

단체교섭을 통해 합당한 보상이 주어진다면, 이는 조합원들의 동기부여를 높이고 발전 욕구를 자극해 KT의 성장을 촉진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KT가 AICT컴퍼니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노동조합이 노력하고 그에 대한 과실이 조합원에게 공정하게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되어야 하기에, KT노동조합은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합당한 보상과 개선된 근무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폭염 속 안전하게 일할 권리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이 일상화되면서 노동자의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다. 체감온도 40도를 넘나드는 작업 현장에서 온열질환으로 쓰러지는 노동자들의 소식이 연일 들려온다. 이제 폭염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산업재해 요인이다. 이에 정부는 폭염 상황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의무를 강화했다.



폭염작업, 이제는 쉬면서 일해요!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체감온도 31°C 이상에서 장시간 작업이 이뤄질 경우를 ‘폭염작업’으로 정의했다. 체감온도 33°C 이상일 경우에는 2시간 이내 최소 20분 이상의 휴식을 의무화했다. 이는 기존 권고 수준에서 법적 의무로 격상된 것으로,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업주는 폭염작업 시 반드시 작업장에 온·습도계를 설치해 체감온도와 조치 사항을 기록·보관해야 한다. 또한 노동자에게 온열질환 증상과 응급대처 요령을 교육하고, 음료수 및 소금을 제공해야 한다. 작업 중 의심 증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하며, 관련 조치는 당해 말까지 보관해야 한다.

실내외 작업장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조치도 다르다. 실내에서는 냉방 또는 통풍 설비 설치, 작업시간을 조정해야 하며, 휴식시간 제공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실외 작업장은 그늘 제공과 함께 작업시간 조정, 휴식시간 확보를 기본 의무로 수행해야 한다.

예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A씨는 오후 2시쯤 체감온도가 35도에 달했지만 계속 작업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하지만 개정된 규칙에 따라 A씨는 2시간 이내 최소 20분 이상의 휴식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한 그늘진 휴게공간과 음료수, 소금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폭염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첫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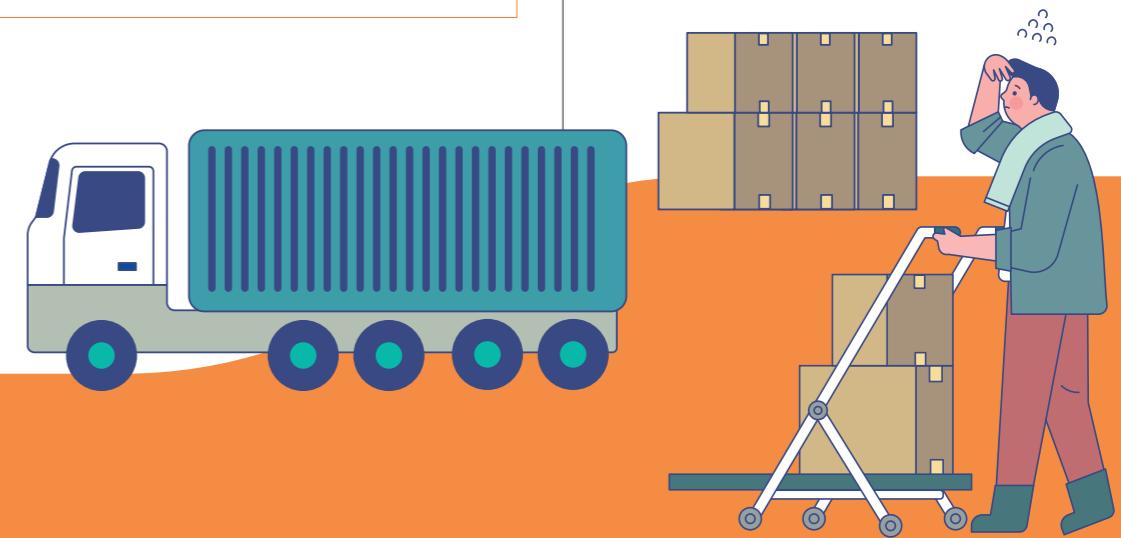
2024년 대전지법은 폭염 속 열사병으로 인한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2022년 7월 대전 유성구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원청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매뉴얼 부재를 핵심 위반 사유로 판단했다.

이 판결은 단순한 권고 수준을 넘어 사업주에게 구체적인 법적 책임을 부여한 중요한 선례가 되었다. 사업주가 유해 위험요인을 사전 확인하지 않고, 충분한 휴식시간과 수분 제공, 그늘진 휴게공간 등을 마련하지 않으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노동자들은 이제 폭염 상황에서 적절한 보호조치를 요구할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 사업주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온열질환 발생 시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가능성도 높아졌다. 특히 현장에서 온열질환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사례의 72.7%가 체감온도 31°C 이상에서 발생했다는 통계는 이 기준의 과학적 근거를 뒷받침한다.

예시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 B씨는 폭염 속에서도 적절한 휴식시간을 제공받지 못해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을 경험했다. B씨는 이를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했고, 조사 결과 사업주의 의무 위반이 확인되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B씨의 온열질환은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여름철 폭염은 예측 가능한 위험요소다.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복리후생이 아니라 법적 의무이며, 기본적인 인권이다. 노동자는 월 권리가 있다. 그리고 그 권리는 무더위 속에서 절실히 있다. 사업주와 현장은 그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안전한 여름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노동자의 땀과 생명이 대가 없이 소모되지 않도록, 사회 전체가 되새겨야 할 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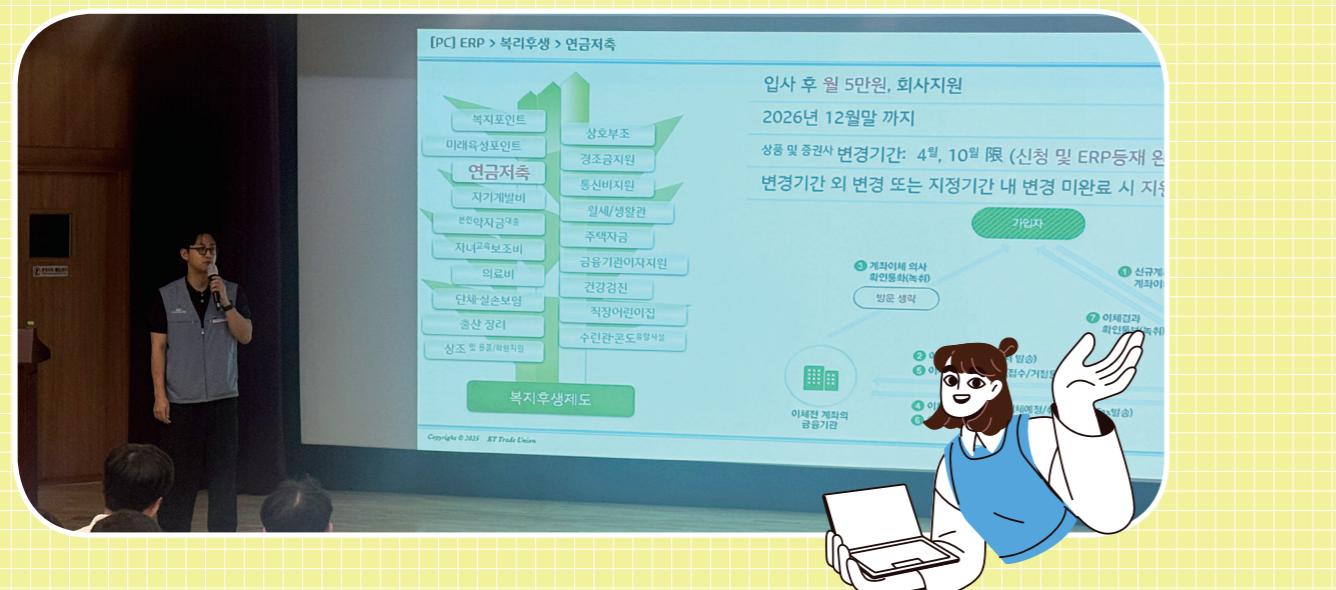


하반기 신입 조합원 입문교육 실시

노동조합 역할 및 복지제도, 주요 활동 소개



KT노동조합이 신입 조합원들에게 KT노동조합의 조직을 소개하고, 복지제도 등을 교육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입 조합원의 든든한 울타리, KT노동조합

KT노동조합은 7월 10일(목) 오후 2시, KT 원주 연수원에서 2025년 신입 조합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KT노동조합의 역할 ▲KT노동조합의 역사 ▲KT노동조합 구성 및 조직 ▲KT 복지제도 ▲‘다온플랜’ 상조·웨딩 지원 서비스 소개 등으로 진행됐다.

중앙상무집행위원들은 신입 조합원들이 KT노동조합의 역사적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하고, 9개 지방본부의 역할을 소개했다. 이어 KT노동조합의 주요 행사와 전국 현장간담회 등 조합의 주요 일상 활동내역을 소개하며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인관 위원장은 “KT노동조합은 조합원 중심의 노동조합 건설을 기치로, 조합원의 고용안정과 복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이에 맞는 정책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기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노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조합원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라며, “조합원들의 입장에 대변하고, 권익향상에 주력하는 등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인관 위원장은 “KT노동조합은 앞으로도 건강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어가며, 노조의 뿌리인 조합원을 최우선으로 삼고 현장 중심의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조합은 여러분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이니, 궁금한 점이나 상의할 일이 있다면 언제든 문을 두드려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KT노동조합은 조합원 중심의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노동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조합원들의 당연한 권리가 보장되는 일터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소통의 창구를 열어 조합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KT노동조합은 앞으로도 건강한 일터문화 조성을 위해 유익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수해재난지역에 뿌리내린 희망의 손길

KT노동조합 재난 극복 지원활동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국 각지에 KT노동조합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다.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진행된 수해재난지역 지원 활동은 단순한 복구 작업을 넘어 피해 주민들과 현장 인력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뜻깊은 여정이었다.



‘현장에서 피어난 희망’ 통신 복구와 인력 지원

KT노동조합은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이틀간 수해재난지역에 대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집중호우 이후 내리쬐는 무더운 날씨와 악조건 속에서도 조합원들의 열정은 식지 않았다. 조합은 무더위 속 고생하는 조합원들을 위해 중앙상무집행위원회를 파견해 이들의 활동을 격려했다. 이번 지원활동은 강북, 부산, 호남, 충청 등 4개 지방본부에서 이뤄졌으며, 피해지역 고객과 통신시설 복구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했다.

조합원 777명은 수해복구 활동에서 관내 인력 공백지역 지원은 물론, 개통이나 A/S 지원 등 통신 복구 작업을 시행했다. 경기도 가평군 조정면에서는 폭우로 전기와 물 공급이 끊긴 마일1리 마을회관에 이동형 발전차를 긴급 투입해 단전과 단수로 고통받던 지역 주민들에게 필수 전력을 공급했다. 용주계곡 인근 펜션에도 이동형 발전기를 지원하며 고립된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했다.



Interview

1

강북강원광역본부 사업지원부 조직운영팀
보건관리자 김은혜

가평군 포도밭과 주택가에서 진행된 수해복구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ESG팀과 고객본부 보건관리자분과 함께 상시지원 TF 팀을 구성해 현장을 지원했습니다. 폭염 속에서도 작업자분들이 건강하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생수와 이온음료를 제공하고, 쿨링 활동을 병행했습니다.

현장에 전기나 수도가 나오지 않는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 무더위 속에서도 그늘막이나 냉방 휴게 공간 없이 작업을 이어가야 했던 점이 힘들었습니다. 폭염과 빗속에서도 묵묵히 함께해 주신 봉사자분들과 상시지원 TF 팀원들을 보면 공동체의 따뜻함을 깊이 느꼈습니다.

제 역할이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도움이라는 생각에 힘이 났습니다.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Interview

2

충청코어운용센터 코어운용센터
박미연 과장

당진용연유치원에서 침수된 집기류 이동 및 정리와 세척을 도왔습니다. 교실 안 1m 높이까지 물이 차올라 책상, 의자, 교구 등 모든 집기류가 진흙으로 뒤덮여 있어 아이들이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세척하고 말리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사실 여름휴가 가기 전에,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들에 대한 뉴스를 보고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마침 휴가 3일 전에 수해 복구 봉사활동 신청자를 받길래 센터에서 1등으로 신청하여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옷이 다 젖었지만, 다시 유치원에 돌아와서 즐겁게 자넬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언제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경우 또 1등으로 신청해서 다녀오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막막하고 힘드실 많은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끝에서 전해진 온정’ 구호물품과 급식 봉사

생필품 전달 활동도 의미 깊었다. KT 부산/경남광역본부는 복구 작업 장기화에 따라 현장에서 고생하는 군인, 소방관,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도시락 2,000인분을 제공했다. KT 산청빌딩에 마련된 조리 공간에서 사랑의 밥차를 활용해 진행된 이번 활동에는 KT 부산/경남광역본부 사랑의 봉사단 60명이 3일 동안 직접 참여해 온정의 손길을 더했다.

피해 주민과 복구 인력의 안전한 작업을 위해 목장갑, 쿠토시, 쿠수건, 고무장화, 물 등 6,000개의 구호물품도 추가 지원했다. 앞서 지원한 구호물품 7,000개와 합쳐 총 1만 3,000개를 지원하며 실질적 도움을 제공했다. 가평군 마일리 마을회관에는 생수 10상자와 라면, 휴대용 가스버너 등 생활필수품을 전달해 이재민들의 어려움을 덜고자 했다. KT노동조합 김인관 위원장은 “더운 날씨로 인

해 여전히 몸도 마음도 지치는 상태에서 막을 수 없는 크나큰 재해가 닥쳐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피해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도록 재난 극복과 현장 조직 안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Interview

3

전남고객본부 사업기획부 토탈영업운영팀
임은정 과장

KT사랑의 봉사단을 통해 인연을 맺은 광주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침수 피해로 시각장애인분들이 사용하는 시설과 주변들이 각종 쓰레기로 뒤덮여 있어, 인근 주변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정화 활동을 맡았습니다.

매년 KT사랑의 봉사단으로 참여하며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작은 도움에도 감사해하는 피해 주민들을 보면서 보람이 커졌고, 평소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의 안전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매년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은 함께하는 동료들입니다. 동료들과 함께할 때 나눔의 의미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작은 힘이지만 복구과정에서 필요한 일손이 있다면 언제든 달려가겠습니다.

Interview

4

부산액세스운용센터 서부산엔지니어링부
이현민 사원

이번에 산청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인해 수해복구가 시급한 상황이라는 소식을 듣고 군인, 소방관, 자원봉사자분들께 도시락을 나눠드리는 봉사활동이 있다고 하여 참여했습니다. 중식 도시락(300인분), 석식 도시락(350인분)을 만들었고, 구호물품 지원 활동에도 참가했습니다.

이번 수해복구 봉사는 처음 참여한 활동이라 걱정도 되었지만, 구호물품을 가지러 오신 군인분들과 소방관분들의 진심이 느껴지는 감사 인사를 들으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이 뿌듯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나눔의 의미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수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텐데,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AI 시대의 노동 규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글 조준모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변화 가로막는 노동 규제

AI 생태계의 핵심은 창의적인 기업 활동과 기술 혁신이다. 그런데 현재 이러한 AI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경직된 노동 규제다. AI 시대에 적합한 노동법은 기존의 전통적인 고용 개념에서 벗어나, 복수의 사업장에서 다양한 근로조건 하에 일하는 노동자까지 폭넓게 보호하는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1950년대에 만들어진 경직된 공장형 노동법은 AI-유연안전성(AI-Flexicurity)의 방향으로 개

혁되어야 한다. 이는 근로조건 결정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노동계약 법제로 재구성되어야 하며, ‘고용의 유연성’만 강조하는 단편적인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근로자 개인·가족·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미래지향적인 노동개혁이어야 한다. 이는 기존 정규직 중심의 유연안전성이 아니라, 다양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체계다. 이를 위해 노동법상 자발적 계약의 다양성을 제한하는 기존 규제들을 철폐해야 한다.



AI 선도국들은 다양한 하이브리드 근로 모형을 도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Upwork는 AI 기반 마이크로 테스크 플랫폼을 통해 고효율 매칭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EU 역시 AI 디지털 노동 프로젝트를 통해 AI-노동 협업형 노동시장을 구축하고 있다.

AI 기반 직무 자동화와 동시에 노동보호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중국의 Alibaba 등 대기업들도 정부와 협력해 AI 프리랜서 생태계를 구축하고, Gig 플랫폼 내 협력 모델을 추진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또한 SkillsFuture AI Academy를 국가 주도로 구축하여 AI 마이크로 일자리를 국가 교육 시스템과 연계하고 있다. 이처럼 글로벌 AI 플랫폼이 노동시장에 점차 안착하면서, 내부 직원 중 일부를 프로젝트 기반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IT 고급 인력은 여러 기업에서 동시 근무가 가능해지고 있으며,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 인력 공유도 활성화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노동법은 여전히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의 경계, 또는 실질적 지배력이 존재하는 하청사업장 까지만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이며, AI 시대에 걸맞은 노동시장의 큰 그림은 아직 구현되지 않고 있다.



↗ AI 생태계, 유연한 노동 필요

노동시장에서 자발적 계약 공간이 확장되면, 직무 중심의 노동시장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다. 이로 인해 정규직 근로자의 기준 관행은 점차 변화하게 된다.

자발적 계약을 통해 근로자와 기업은 상호 적합한 근로조건을 설정하고, 근로 시간의 유연한 선택, 출산 및 육아기에 맞춘 유연근무, 여성 고용률 증대, 경력 단절 방지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근로 시간 결정권을 주 40시간 중심의 소정 근로 시간 틀에서 벗어나, 20시간, 30시간 단위로 다양한 근로조건이 계약될 수 있도록 하며, 정규직 파트타임 근로자도 확대해야 한다.

연차휴가는 근속연수에 따라 자동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 20일 이상 수준의 충분한 휴가를 근로자와 기업의 니즈에 따라 자율적으로 계약·설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존의 전일제·정규직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내부 인력을

일정 비율로 프로젝트 단위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확산되고 있다. IT 고급 인력은 복수의 기업에서 동시 근무가 가능해지고,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 인력 공유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근로자의 근로 시간 간 자기결정권 확대는 필수적이다. 집단자치로 결정된 근로 시간 총량 한도 내에서 개별 근로자의 근로 시간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사업장의 인력 운용 부담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의 삶의 질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려면, 글로벌 수준으로 실질 근로 시간을 줄이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개인의 근로 여건에 맞춘 하이브리드 근무제(예: 사업장 + 재택/원격근무, 일 단위 근로 시간 조정제 등)를 도입하고, 연차·배우자·돌봄 등 휴가 및 휴직의 활용을 장려하며, 업무·직무 특성에 맞춘 다양한 (탄력·선택·간주·재량) 근로 시간제를 확대하고 그 활용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더 나아가 생애주기별 일과 생활의 균형(Work-life balance)을 보장하면서도, 기업의 시장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주 단위 법정 근로 시간 총량의 점진적 축소를 위한 로드맵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1일 근로 시간 상한은 폐지하되, 최소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함으로써 횡일적인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니라, ‘내가 설계하는 삶’으로 노동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

AI-유연안전성의 실질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날로그식 사회안전망을 디지털로 연계·통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소득 파악 등을 위한 ‘개인 데이터 고속도로’를 구축하여 AI를 활용한 효율적인 보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개인 맞춤형 직업 훈련 및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플랫폼 노동 등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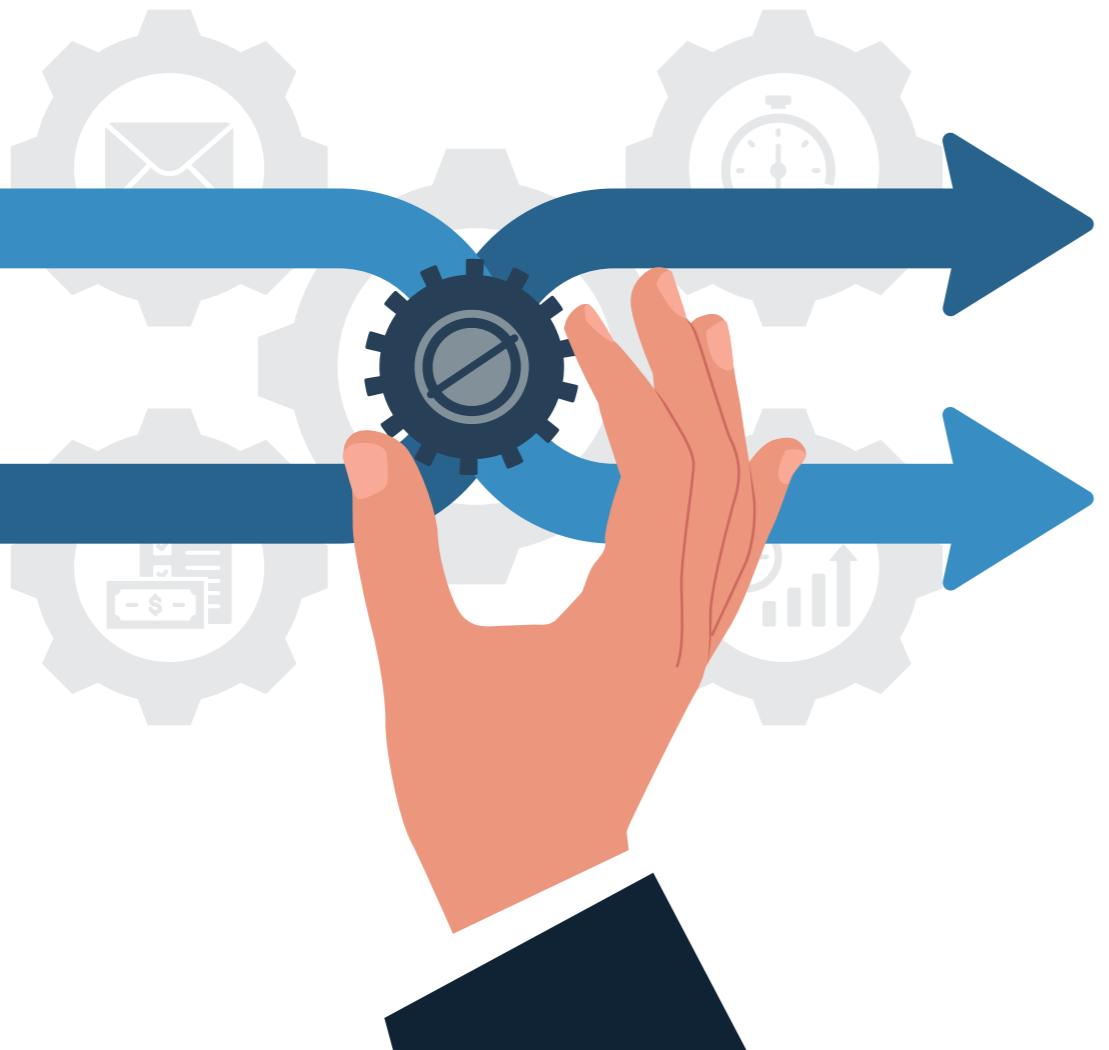
AI라는 쓰나미로 인해 일자리가 파괴되는 현상을 막고, 무너진 일자리 생태계를 복원하며, AI 시대에 적합한 혁신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사회안전망과 연계된 노동 규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노동환경 대변화 예고

노란봉투법·주 4.5일제·포괄임금제 금지 등 친노동 정책 가시화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하면서 ‘노동 존중’을 기치로 내건 친노동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그간 노동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노란봉투법 재입법 ▲주4.5일제 도입 ▲포괄임금제 금지 ▲정년 연장 등 주요 과제들이 정부 정책의 전면에 등장한 것이다. 여대야소 정국 속에서 이러한 정책 변화는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일과 삶의 균형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지만, 동시에 산업계의 부담 증가와 노사 갈등 심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노동자 권리 보호 강화, 하지만 갈등 요소 존재

새 정부의 핵심 노동정책 중 이목이 끌리는 것은 ‘노란봉투법’ 재입법이다. 이 법안은 원청 기업에 대한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가 원청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원청과 하청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얹힌 상황에서는 노노 간 갈등이나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로 인한 새로운 분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포괄임금제 금지’ 입법 역시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기본 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 월급여액을 정하는 정액급제와, 제수당을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정액수당제가 모두 금지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그동안 ‘무료 야근’을 실행한 노동자들은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정당한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기업들이 기존 임금 총액을 유지하고, 통상임금 상승분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의 체감 임금이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근로시간 단축과 고령자 고용 연장의 이중 과제

‘주 4.5일제’ 또는 ‘주 4일제’ 도입은 노동자들의 일과 삶의 균형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책이다. 현재 주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노동자들은 더 많은 여가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단순한 근로시간 단축이 아닌 근로시간과 장소, 업무 방식의 개선이 동반되지 않으면 업무 강도만 높아지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특히 제조업처럼 현장 근무가 필수인 업종에서는 인력 증원 없이는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년 연장 정책은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평가되면서도 노동자들에게는 양면적 의미를 갖는다. 정년이 현행 60세에서 연장될 경우 노동자들은 더 오랜 기간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지만, 청년층 일자리 기회 감소와 세대 간 갈등 심화가 우려된다. 또한 2016년 정년 연장 당시 도입된 임금피크제로 인한 갈등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정년 연장 정책 도입은 새로운 노사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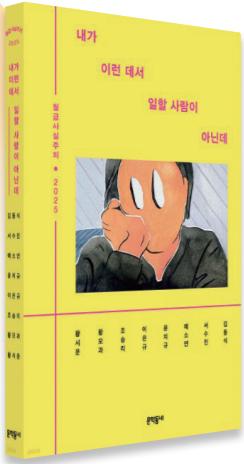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이라는 긍정적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다만 정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갈등 요소에 대한 치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정책 변화가 갈등이 아닌 상생의 출발점이 되기 위해, 노사 모두의 준비와 조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오늘날의 우리에게 전하는 작은 위로



도서

일다운 일이 뭐길래



내가 이런 데서 일할 사람이 아닌데

저자 김동식, 서수진, 예소연 외 5명

출판 문학동네

『내가 이런 데서 일할 사람이 아닌데』는 ‘월급사실주의’ 동인 이 펴낸 단편소설 앤솔러지로, 먹고 살기 위해 선택한 일터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쌀먹」은 게임머니를 현금화해 생계를 잇는 게이머 김남우의 이야기다. 인간 혐오로 중소기업을 그만둔 뒤 취업에 번번이 실패한 그는 세상과 거리를 두고 쌀먹을 선택한다. 김남우는 대형 게임사가 쌀먹 정직원을 앞세워 신작을 홍보하자 희망을 품지만, 곧 자신이 마케팅에 도구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좌절한다.

표제작 「내가 이런 데서 일할 사람이 아닌데」는 저시력 시각 장애인 ‘나’가 백화점 직원들을 위한 헬스키퍼로 일하며 겪는 현실을 그린다. 손님일 때 친절하던 백화점 직원들은 자신이 고객이 되자 손님에게 받은 스트레스를 ‘나’에게 풀며 진상으로 돌변한다. 어느새 ‘나’는 최소한의 힘만 들여 원칙대로만 일하려고만 하게 되고, 결국 실직 위기에 처한다.

「아무 사이」는 노인 시터인 희지의 삶을 조명한다. 인정받는 시터로 살아오던 그는 어느 날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돌보던 할머니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희지는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숨기지만 금방 들통나고, 자신은 정말 최선을 다했다며 항변한다.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퇴근길 문득 스쳐 가는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라는 물음 앞에 흔들리면서도,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간다. 직업도 처한 상황도 다르지만, 일과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애쓰는 그들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담담한 위로를 건넨다.



하루의 고단함과 피로는 때로 ‘다 그렇게 살아’라는 말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책 『내가 이런 데서 일할 사람이 아닌데』와 드라마 『노무사 노무진』은 그렇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노동과 희생을 조명한다.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이야기는 ‘일한다는 것’의 진짜 의미를 되짚어 보게 만든다.

드라마

의미 없는 날갯짓은 없다



노무사 노무진

방송 2025.05.30 ~ 06.28

MBC 10부작

직장생활이 행복하지 않다는 생각에 잘 다니던 대기업을 퇴사한 노무진(정경호). 친구의 유혹에 넘어가 인생 역전을 꿈꾸며 시작한 코인 투자는 실패로 끝나고, 그는 빈털터리가 된다. 그때 회사 선배의 권유로 노무사 시험에 도전해 합격하지만, 갈 곳이 없어 겨우 개업한 사무실에는 파리만 날린다. 절박해진 노무진은 기자 출신 유튜버 견우(차학연)의 제안으로 노동법에 취약한 기업을 방문해 법 위반 사항을 찾고, 이를 빌미로 사장을 압박해 돈을 벌어보려 한다. 첫 번째로 방문한 현장은 산재 은폐로 악명 높은 ‘태협철강’. 현장 점검에 나선 무진이 철근 낙하 사고로 죽음을 눈앞에 둔 때, 의문의 청년 보살이 나타난다. 보살은 목숨을 살려주는 대신 억울하게 죽은 노동자들의 한을 풀어주는 조건의 ‘원혼 성불 계약’을 제안한다.

노무진이 처음으로 마주한 유령 의뢰인은 공장에서 무리한 작업을 강요받다 기계에 팔이 끼여 숨진 고등학교 실습생이다. 그는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 세상에 드러내는 데 성공하고, 이후에도 죽을 고비를 몇 차례 넘기며 유령 의뢰인을 통해 사회의 어두운 이면과 마주한다.

드라마는 노무진이 겪는 위기를 때로는 유쾌하게 풀어내지만, 동시에 무책임한 관리자, 형식적인 안전수칙, 책임 회피 등 노동 현장의 씁쓸한 현실을 조명한다. 그는 외면받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안타깝게 삶을 마감한 노동자들의 죽음을 마주하며 진정한 노무사로 성장한다. 노무진의 변화는 우리에게 세상을 바꾸는 일은 우리의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하며, 누군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주요소식

광복 80주년 기념, 보훈나눔의 날 봉사활동 진행



KT노동조합과 회사는 8월 11일(월), 각 지방 소재의 보훈요양원을 찾아 KT 노사공동 국가유공자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국가보훈부와 본죽이 협업하여 국가유공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각 지역 본부별로 보훈원 및 전국 8개 보훈요양원의 입소보훈가족에게 지원물품을 일괄 전달했으며, 수원 요양보훈원에서는 무더위 극복을 위한 건강삼계죽 등을 나눠주었다. 또한, KT 노동조합 김인관 위원장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함께 항일운동을 전개한 한국광복군 오성규 애국지사를 위문해 건강 상태와 생활 환경을 살피는 등 안부를 전했다. 김인관 위원장은 “올해 100살에 접어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신 모습”이라며 “대한민국을 위해 공헌하고 희생하신 것에 감사를 표한다”라고 오성규 애국지사에게 전했다. 이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매번 드려도 모자라다”며, “특히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올해는 다른 해보다 더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다”고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제4차 산하조직 대표자 회의 개최



KT노동조합은 8월 6일(수) 14시, 분당사옥 대회의실에서 제4차 산하조직 대표자회의를 열고 현안들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노동조합 김인관 위원장을 비롯하여 9개 지방본부 위원장들이 참석해 2025년도 단체교섭 진행상황 경과 보고와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하여 심도깊은 의견을 주고 받았다. 김인관 위원장은 “회사측의 주장은 조심모사 격으로 조합원들의 눈을 가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수준의 제안”이라고 사측을 비판했다. 이어, “긍정검토를 요구했지만 변화된 입장없이 조합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단계별 투쟁으로 나아갈 수 밖에 없다”며, “그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KT 그룹노조협의회 회의 개최



KT그룹노동조합협의회(이하 KT그룹노조)는 8월 4일(월) 16시, 그룹노조(KT노동조합 위원장이자 KT그룹노조 의장 김인관) 대표자회의를 열고 현안 및 향후 활동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본 회의에서는 2025년도 단체교섭의 현재 진행 상황을 바탕으로 논의를 이어갔으며, 향후 활동에 대한 계획도 공유했다. 김인관 위원장은 “KT노동조합의 가장 큰 사업인 단체교섭이 진행 중인만큼 책임감과 무거움이 더 크게 다가온다”며, “사안이 중요한 만큼 그룹노조 역시, 단체교섭의 승리를 위해 함께 연대하며 힘써 달라”고 독려했다.

KT 노사공동 사랑의 배식행사



KT 노사는 7월 17 일(목), 중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여름나기,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배식행사를 전개했다. 본 행사는 초복 무더위를 앞두고 KT그룹 노사가 함께 ‘빨간 밥차’를 통한 식사 나눔으로 성남지역 취약계층 노인들에게 사랑과 온기를 전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날 행사에는 KT 노사 및 KT그룹 17개사 노동조합 위원장과 희망나눔재단 등 참석하여 삼계탕과 계절 과일 및 선물을 나눔하며 여름 무더위 건강을 기원했다. 앞서, 김인관 위원장은 “여름 무더위로 인해 건강 유의에 더욱 신경 써야 할 때”이며, “지역 내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선물을 전달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설명한 뒤 “사회 취약 계층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방면으로 도움의 손길을 벌겠다”로 전했다.

조합원 여러분의 의견은 더 좋은 소식지를 만드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내, 일>을 읽은 느낌과 생각을 퀴즈 정답과 함께 메일로 보내주세요. 조합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당신의 일상 속 작은 결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말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내딛는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모여 결국 세상을 움직이는 큰 힘이 된다는 사실, 결심은 행동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빛을 발한다는 사실을 소식지를 통해 되새겨봅니다.

김종원

요즘처럼 덥고 바쁜 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곤 했는데, 앞으로 회의감이 들 때마다 영화 <인턴>의 벤을 떠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쌓아가는 경험 하나하나가 의미 있게 쓰일 것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가치 있는 노동을 실천해 나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함께하는 모든 분들, 파이팅입니다. 좋은 소식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차다빈

UCC 글로벌 봉사활동을 통해 따뜻한 나눔의 시간을 보내고 오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단순히 봉사활동이 아닌, 함께 땀 흘리고 마음을 나누며 진정한 상생의 가치를 실현한 감동적인 순간들이었습니다. 특히,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이러한 봉사활동을 기획하고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점이 매우 뜻깊습니다. 이는 회사의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까지 함께 고민하는 노동조합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 회사가 지향하는 '상생'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김민기

KT노동조합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이 인상 깊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이 꾸준히 이어져,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KT노동조합이 더욱 앞서 나아갈 응원합니다.

김종원

'가치 없는 노동은 없다'에서 소개된 책 <어두운 지하에서도 조용히 빛나는 사람들>이 특히 마음에 남았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곳곳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 덕분에 사회가 돌아간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잘하면 본전, 못하면 크게 티 나는 일'이라는 문구는 노동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했습니다.

오인주

매달 소식지를 읽기만 하다가 처음 소감을 써봅니다. 유익한 내용을 매달 정기적으로 발행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날, 조합원 모두가 시원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의 가치'를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소희

'AI가 해주는 노동법 상담' 코너가 흥미로웠습니다. 업무 질문뿐 아니라 여행 코스 등 AI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노동법 상담도 AI가 가능하다니 신기할 따름입니다. AI 상담 서비스의 한계점은 있겠으나, 기존의 상담 채널 외에 추가되어 언제 어디서나 묻고 답할 수 있다는 점은 아주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조명희

KTTU 초성퀴즈

동그라미 속 초성과 힌트를 읽고 낱말을 완성해 보세요.
정답과 함께 소식지 <내, 일>을 읽고난 소감을 메일로 함께 보내주시면 선별하여
문화상품권(2만 원)을 보내드립니다. [예 : ㄴ ㄷ ㅈ ㅎ → 노동조합]
보내실 곳 m.j.choi@kt.com (최민주 복지국장)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을 승리로 이끈 우리나라의 독립 영웅은? (6~7 페이지 참조)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체감온도 31°C 이상에서 장시간 작업이 이뤄질 경우를 '이것'으로 정의했다. (14~15 페이지 참조)



원청 기업에 대한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가 원청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조합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법안은? (24~25 페이지 참조)

kt임직원 감사 답례품(기프티쇼) 할인 안내

최대할인
10%

임직원님의 애경사를 같이 해주신 분께 답례 시
조금이나마 편의를 드리고자 모바일 상품권(기프티쇼)을 할인해 드립니다.

★ 이용 방법 및 절차

- [다온플랜 홈페이지](#) (daonplan.com) > 소식 > 회사소식에 공지 확인

★ 할인 안내 (판매가 금액 합계)

금액대 구간	할인율
30만 원 이상 ~ 100만 원 미만	3%
100만 원 이상 ~ 200만 원 미만	5%
200만 원 이상 ~ 400만 원 미만	7%
400만 원 이상	10%

발신번호 별로 할인율 책정하며, 할인율은 상품 판매가
함께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최초 구매 시 상품 판매가 합계 기준 최소 금액은
30만 원입니다.

최초 구매 후 추가구매는 7영업일 내에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최초 구매 시의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ex) 최초 구매 100만 원 : 5% 할인 적용
→ 추가구매 20만 원 : 5% 할인 적용

추가구매로 인한 누적금액의 합산 할인율 적용은 불가합니다.
ex) 최초 구매 50만 원 : 3% 할인 적용 / 추가구매 150만 원 : 5% 할인 적용
→ 최초 구매 50만 원에 대해 추가 2% 할인 적용 불가

★ 유의 사항

- 해당 기프티쇼는 B2B 프로모션 선물용으로
유효기간은 60일이고 연장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 해당 기프티쇼는 유효기간 도래 전 안내문자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KT멤버십 종복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며, 선물용이기에
본인 사용용도로 구매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선택 가능한 상품은 물품교환형입니다.
- 부득이 금액형 또는 상품권 등 일부 상품 선택 시
할인 미적용 및 판매가 합계 시에도 산정 제외
- 신청 시간(영업일 09:00~17:00) 이후 신청 시 익영업일 발송됩니다.

→ 7%할인 (182,700원)된 금액 2,427,300원을 입금

★ 할인 예시

브랜드	상품명	판매가격(원)	수량(개)	소계	비고
스타벅스	아이스 카페 아메리카노 Tall	4,500원	100	45만 원	커피 1잔
스타벅스	부드러운 디저트 세트	13,500원	100	135만 원	커피 2잔, 조각 케이크 17개
베스킨 라빈스	골라먹는 와츄원	27,000원	30	81만 원	아이스크림 케이크
판매가 합계					261만 원

문의 [다온플랜 1577-1555 \(ARS 3번\)](#)



다온플랜 서비스 안내



장례 서비스

- 상 발생 시 다온플랜(1577-1555/ARS 1번)에 문의해 장례식장 선정 바랍니다.
- 약정금액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품질과 정성이 담긴 장례행사를 진행하여 드립니다.
-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근조화환, 장제용품, 근조기가 제공되는 그룹사가 있으니, 상 발생 시 꼭 콜센터로 문의해주세요.



웨딩 서비스

- 신랑·신부의 소중한 첫 출발을 위한 토탈 웨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조화환 서비스

- 상 발생 시 장례식장으로 근조화환을 배송하여 드립니다.
(지원되는 그룹사만 해당)



축하화환 서비스

- 웨딩 시 웨딩 행사장으로 축하화환을 배송하여 드립니다.
(지원되는 그룹사만 해당)



근조기 서비스

- 상 발생 시 장례식장으로 근조기를 배송하여 드립니다.
- 근조기는 KT 자산입니다. **장례행사 후 가져가지 마시고 장례식장에 맡겨 주세요.**



장제용품 서비스

- 상 발생 시 장례식장으로 장제용품을 배송하여 드립니다.
(지원되는 그룹사만 해당)

콜센터
(1577-1555)
안내

콜센터 전화 후 ①번
장례 서비스, 근조화환 서비스,
축하화환 서비스, 근조기 서비스,
장제용품 서비스 신청 또는 문의
※ 야간(18시~09시)에는 무인 운영합니다.

콜센터 전화 후 ②번
웨딩 서비스 신청 및 문의

콜센터 전화 후 ③번
회원 가입 및 해지 등
회원관련 일반 문의

헬스케어 서비스 종료 안내
다온플랜에서 부가서비스로 제공되었던 헬스케어 서비스가 이용률 저조로
2024년 5월 23일부로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